



가난한 지역주민의 쉼터 “평화의 집”

봉천 5·9동 재개발 지역주민 위해 노인 사랑방 등 운영



가난하지만 마음이 풍성한 사람들이 같은 지역의 가난한 이웃을 위한 작은 공간을 만들었다. 지난 해 2월, 관악구 봉천9동 산 102-1번지에 문을 연 “평화의 집”(대표 정봉수)

재개발 지역 주민들에게 쉼터, 공동 사업장을, 문화의 공간을, 그리고 청소년들에게는 공부방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 개발추진위원회에 의해 만들어진 이 공간은 어느 곳보다 포근한 안식처가 되고 있다.

오는 7월 중순경에는 영아탁아소도 운영해 대부분이 직장을 갖고 있는 그 지역여성들의 육아부담도 덜어 줄 계획이라는 평화의 집의 이모저모를 소개한다.



평화의 집은
현재
지역 노인 사랑방 운영,
노인 중식 제공,
청소년 공부방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사진 ; 노인들의
즐거움 식사시간)

● 지역주민 위한 다양한 사업 마련

“하늘 아래 첫번째 집”이란 표현이 꼭 들어맞을 만큼, 평화의 집은 정말 봉천9동 산꼭대기에 자리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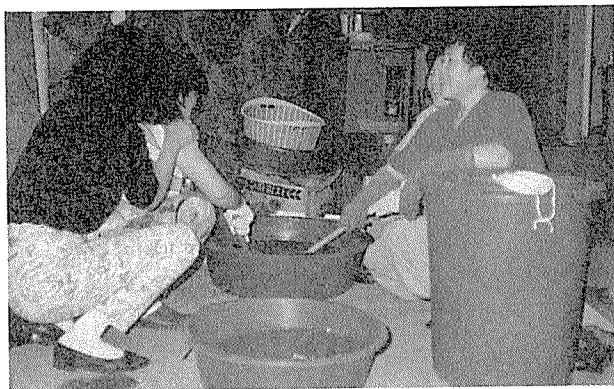
비록 조금은 허술하게 지어진 무허가의 단층짜리 건물이지만, 가난한 지역주민의 공동사업장으로 또 노인들의 사랑방으로, 청소년의 공부방으로 쓰이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제법 탄탄해 보인다.

평화의 집이 문을 연 것은 지난 해 2월이다. 그 이전부터 운영 되어오던 봉천 5·9동 지역발전추진위원회에서 마련한 이곳은 그동안 재개발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다양하게 쓰여져 왔다.

모두 6명의 운영위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평화의 집의 구체적인 활동내용은 참으로 다양하다. 즉, 지역 노인들에 대한 점심 제공, 노인사랑방 운영, 노인을 위한 강좌 개설, 소년·소녀 가장 및 결손가정 결연, 청소년 공부방 운영 및 어학강좌 개설, 성교육, 단전호흡·수지침 등 건전 생활문화 보급 운동, 재활용품 수집, 무공해비누 만들기, 농산물 직거래, 생산공동체 운영 등등.

● 공동 생산·수입·분배 원칙으로 공동사업장 운영

평화의 집의 사업 중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생산공동체 사업



평화의 집은 주로 후원금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나 고정적 후원자가 너무 적어 재정난을 겪고 있다.

(사진 : 무궁해 비누를 만들고 있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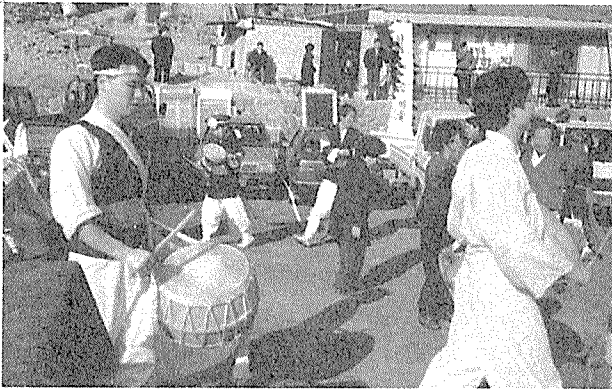
이다. 공동 운영·생산·수입·분배를 원칙으로 약 7개월 정도 운영되어 온 이 사업은 현재 개량 한복류의 봉제 하청일을 주로 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별도로 작으나마 사업장을 마련해 이사를 하는 등 많은 발전을 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노력에 비해 결과가 적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 가난한 이웃 위한 보다 많은 후원 아쉽다

이처럼 많은 일을 하고 있는 평화의 집은 대부분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후원을 희망한 사람에 비해 실제로 고정적으로 후원금을 보내는 사람은 너무나 적어서 커다란 재정난을 겪고 있다. 이들은 그래서 바자회 등을 비롯한 수익사업을 통한 자구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실정.

● 9월 4일경 바자회 계획, 후원처 모집

이들은 오는 9월 4일에 평화의 집 운영 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를 계획하고 여러가지 물품을 기증받고 있다. 그러나 지역 주민의 경제력을 감안할 때 아무래도 부족한 점들이 많아서 물품 등을 기증해 줄 직장이나 단체의 후원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평화의 집과 같은
공간이 있는 한
이 세상은
어둡지만은
않을 것이다.
(사진 : 개월잔치때
사물놀이 장면)

● 가난한 이들의 영원한 쉼터가 되도록 배려 기대

이들에게는 또 하나의 고민거리가 있다. 앞으로 재개발이 된 후 임대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현재 무허가로 운영되고 있는 평화의 집은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것.

『재개발에 의해 임대아파트가 들어선다해도 그곳의 입주자 대부분이 빈민이라고 생각할 때 평화의 집과 같은 곳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려운 지역에서 어렵게 일하고 있는 우리 평화의 집이 정식 복지 시설로 꼭 인정받아서 진정으로 가난한 이들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배려를 기대하고 싶습니다』라고 정봉수씨는 토로한다.

● 물질적 풍요 뛰어넘는 마음의 풍요가 있다

자신이 바로 재개발 지역주민인 정봉수씨. 그는 오늘도 내 가족 보다는 우리 주민을 위해 무엇을 할까하는 생각에 몰두하고 있다. 정씨 같은 사람, 평화의 집과 같은 공간이 있는 한 이 세상은 결코 어둡지 않을 것이다. 또 물질적인 부유함을 뛰어넘는 마음의 부유함이 얼마나 가치있는 것인가에 새삼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평화의 집은 이 마음의 풍요로움을 함께 나눌 후원자들을 기다리고 있다.(연락전화 (02)883-3784) 